

**칼럼**

# 새해에 거는 기대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새해를 맞이하며 소망하는 것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는 건설경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작년은 재작년보다는 못하지 않았다 정도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찾을 수 있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이유는 경기의 불씨가 워낙 위태롭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시장 정상화 대책이 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에 힘입어 움직이기 시작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력이 자칫 힘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는 입장에서 시장에 물량이 과도하게 공급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내년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연착륙 여부, 엔화의 약세 지속, EU 경제의 침체와 같은 대외 요인을 감안하면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

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 말고도 기업 환경 악화가 체감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나마 어렵사리 수주한 사업도 최저가낙찰제와 실적 공사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해왔던 관행이 담합이라는 굴레로 다가와 입찰참가 제한, 과징금, 형사 처벌,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행히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실적공사

비의 현실화 등이 얘기되고 있다. 담합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적인 해법이 제시되어 내년에는 기업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사정이 이렇진대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이 손 놓고 정부와 국회를 쳐다보며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구걸할 수는 없다. 또한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되어 이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요행을 바랄 수만은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건설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하향세를 취하면서 안정될 것이다. 건설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건설기업의 수가 너무 많다. 산업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의 체질 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이 더 날씬하고 강해져 생산 원가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 민간 투자 등의 개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는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해외 시장은 위험 관리에 능한 대형 건설업체의 대안 시장일 수 있겠지만,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다른 틈새시장에 특화하기를 권하고 싶다.

금년 한 해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보조를 맞추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희망을 꿈꾸는 새해인 만큼 잘 되기를 기원한다. 건설산업 파이팅! 